

문체론적 측면에서 본 한국 소설의 중국어 번역 연구 — 은희경 장편소설 『마이너리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금 지 아*

(북경대)

1. ‘번역’ 논의를 열며

‘번역된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결코 ‘원작’이 될 수 없다. 실제 번역 작품의 연구에 앞서 번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번역을 ‘원작의 메아리’라 한 웰렉의 시각이나 베끼기(模寫)로 보던 전통적인 시각은 원작에 비해 번역 작품을 평가절하 하는 관점에서 기인된 것이다.¹⁾

* 북경대학 한국어학부 부교수

1) R. Wellek & A. Warren, *The Theory of Literature*(N.Y, 1956)37쪽. 바스네트는 Evan-Zohar의 “Translation Theory Today”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원작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번역을 “오직 원작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생생한 요소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열등한 베끼기”로 본 것으로 요약했다. S. Bassnett, *Comparative Literature* (Blackweell, Oxford UK & Cambridge USA, 1993, 140쪽(이혜순,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서울; 태학사, 2002, 205쪽에서 재인용)

최근의 번역학자들은 원작과 번역을 주종의 대립적 관계로 보던 시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²⁾ 번역 작품의 가치를 인식하는 입장에서 번역을 ‘재창조’나 아니면 적어도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³⁾ 비교문학이 번역 연구를 ‘번역된 작품’에 한정시킬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의 비교문학적 연구는 번역본에 나타난 원작과의 차이점(거리)을 기반으로 그 의미의 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 역시 번역을 원작의 ‘다시 쓰기’ 과정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원작의 ‘다시쓰기’란 번역본을 원작의 충실한 재현이면서 동시에 번역본 자체의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번역자는 문체 번역을 하기 위해 원작의 서술 기법, 미학적 장치 등에 주목하지만, 언어의 상이성이나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미학적 특수성을 원작과 동일하게 재현하거나 또는 원작에 상응하는 미학적 효과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원작의 내용을 어떤 기초 위에서 보아야 하고, 어떤 효과적인 방식으로 판단, 전달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번역자는 등가(等價)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등가(Equivalence)’란 원작의 텍스트성이 훼손되지 않고 번역본 텍스트로 재현되었음을 의미한다.⁴⁾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번역하는 경우는 대어역이고, 중국의 문화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등가 번역이다. 원작의 내용을 의미상으로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해도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은 문체론상의 섬세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인데, 번역자는 작품의 등가성을 이루기 위

2) Sherry Simon, *Gender in Translation*(London & New York, 1996, 1쪽) 과거 번역과 원작과의 차별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각도로 구명되었다. 특히 원작에 대한 번역의 ‘fidelity(충실성)’ 강조는 원작 - 번역의 관계를 주인-종, 남성-여성, 우월-열등, 충실-방탕의 관계로, 여기서 다시 번역=종=여성=열등=방탕이란 등식을 만들어낸 것으로 비판되었다.

3) Vladimir Macura는 번역은 외부의 문화적 강압에 대한 수동적인 복종으로 보이지 않고, 반대로 번역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기 조차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면서, 이것은 외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사유(私有)이며, 풍부한 전리품을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된 경쟁 지역에 대한 침투로 규정하고 있다. Susan Bassnett, “Culture as Translation”, *Comparative Literature*, 143-144쪽(이혜순, 앞의 책, 205쪽에서 재인용)

4) 이용혜, 「번역의 원칙과 등가성」 『한국(조선)언어문화연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 민족출판사, 2008, 387쪽.

해 언어학적인 요소 외에도 언어외적인 요소인 생활습관, 가치관, 문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⁵⁾ 문체의 번역은 형태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등가성을 띠게 되므로 그러하다. 다시 말해, 문체가 작품의 의미 형성에 참여하는 몫, 그리고 그것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심미적 효과를 옹기하는 것이다. 이는 번역자가 갖는 원작에 대한 이해의 각도와도 관련이 있다. 번역자 주관의 개입도 필요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데, 이 점에서 ‘번역된 문학작품’인 『서울 형제들(漢城兄弟)』(2004, 필자 공역, 원작 은희경 장편소설 『마이너리그』)은 소설 속 서술 언어의 다양성을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 사유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작품 속에는 의인화 등의 수사적 표현, 의성의태어 표현, 언어유희(pun) 표현, 속담 등의 관용어, 중국어권에는 없는, 그래서 설명적 번역이나 의도적 변형이 필요한 문화 어휘 등의 다채로운 미학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작의 충실성과 번역본의 가독성에서 모두 무난하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오역을 포함하여 번역 과정에서 느낀 문체 번역의 난제는 한국 소설의 중국어 번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일반 번역과는 달리 소설 번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번역을 위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도된 본고는 원작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문체론적 요소들과 번역본에서의 이의 구현 여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등가 번역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등가 표현과 등가 어휘로 나누어 기능적 등가를 이룬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체 번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번역을 통해 재현된 미적 효과의 등가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다.⁶⁾ 아울러 결코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등가의 예외적인 사례도 소개함으로써 향후 번역자와 번역 연구자가 만나게 될 문체 번역의 난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5) 이은숙, 『번역의 이해』 서울: 동인, 2009, 17쪽.

6) 본고에서 분석의 일례로 거론한 번역에서 일부 어휘나 구문, 문장의 오역이 발견되었고, 공역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본고의 목적이 오역 여부를 찾아내기 보다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문체론적 요소들과 번역본에서 이의 구현 여부에 있기 때문에 예시한 번역 실례들에서 나타나는 일부 어휘나 문장의 오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 소설 속 문체의 다양성과 중국어 번역상의 구현

1) 원작과 번역본의 소개

은희경의 장편소설 『마이네리그』(창비, 2001)는 중소도시 출신의 남자 네 명을 주인공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삶의 심오한 윤리를 경쾌하게 들춰낸 사회소설이다. 유신세대의 성장기이자 그들을 위한 이야기로서, '마이네리그'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2류 또는 3류 같은 비주류인 '58년 개띠' 고교 동창생들의 인생역정이 그려져 있다. 도무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난해하기만한 표지도 소설 속 네 남자주인공의 흔들리는 삶의 역정을 전해주는 듯하다. 위선을 벗겨내고 이를 냉소적으로 풍자하는 저자의 숨씨가 일품이다.

구체적으로 원작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방 도시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땡칠이'라 불리는 물리 선생 시간에 숙제를 안 해 와서 걸리게 된 4명의 친구들. 그들이 물리 선생의 벌을 받느라 한데 쫓여 있는 모습이 드렁침 같아 '만수산 4인방'이 되어버린 단순 무식형 '조국', 유일한 장기가 여자 꼬이기인 '배승주', 어설픈 조폭 '장두환',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성의 소유자라 믿는 소설 속 1인칭 화자인 '김형준'의 25년에 걸친 삶의 모습이 이 우연한 인연으로 엮이게 된다. 이 우연한 계기를 저자 은희경은 '세상에는 하찮은 인연이 끝까지 따라다니며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일생을 잠식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다.

작중 1인칭 화자인 김형준은 책가방 속에 항상 남들이 모르는 고상한 책들을 넣고 다니며 책벌레라는 별명을 얻는 데 성공한 자칭 '수재'이다. 국제 펜팔부를 함께 들은 형준, 승주, 조국, 두환의 앞에 이웃 여학교에 다니는 소희가 나타난다. 소희가 사랑할 만한 남자는 자신이라고 형준은 믿었지만 소희는 잘생긴 승주의 차지였다. 그러나 한바탕 애정의 쟁탈전을 치르고 난 후 가장 외위의 인물인 두환과 야반도주하고 만다. 남겨진 3명의 친구들은 그러저럭 남은 학교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졸업 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조수가 된 조국, 영업직 사원이긴 하나 사업구상가인 승주, 그리고 광고회사의 차장인 형준. 이들은 나름대로의 삶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야반도주로 사라졌던 소희와 두환이 나타나는데 소희는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리

고는 두환이 다시 외국으로 떠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형준에게 조국과 승주는 사업을 제안한다. 그들에게는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인 ‘브라질 교민 30주년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힘을 합쳐 기획사를 차려 있는 돈을 다 끌어 들이고 백방으로 노력하나 그들의 노력과 기쁨도 잠시였다. 메이저 기획사에 밀려 실패하고 어쩔 수 없는 마이너, 2류 인생임을 확인하게 된다. 조국과 승주는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자위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다. 그 일이 있고 5년이 흐른 후 두환은 미국의 한 슈퍼 계산대 앞에서 총에 맞아 비명횡사한다. 두환의 죽음 앞에서 40대가 되어 다시 만난 이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 반추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그 성숙하고 냉소적인 시선에 비친 소설 속 그들의 에피소드에는 7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던 이들의 풍속이 하나하나 재현되며 8, 90년대 한국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사고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신시대의 ‘긴급 조치’, 월남 패망, 교련실기대회, 울드팝송, 이소룡, 임예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휴거 등은 모두 이 시대의 대표 아이콘들이다. 작품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녀의 소설을 평론가들은 ‘은희경의 소설에는 인간의 본성이 날카롭지만,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기에 그녀의 작품은 신랄하고 가차 없으며 냉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녀가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점은 유머를 통해 섬세하게 캐릭터의 심리묘사를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과 서정적 감수성이 잘 섞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은희경(殷熙耕)의 『서울형제들(漢城兄弟)』(2004, 북경(北京), 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은 2002년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지원으로 당시 북경대학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漢族故 한진건(韓振乾) 교수(필명 진옹함(秦雍涵))가 한국인인 필자와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다.⁷⁾ 2004년 4월 중국의 메이저 출판

7) 공역자는 모두 현직 대학 교수로서 대학에서 한중 쌍방 번역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은 도착어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자가 출발어를 모국어로 하는 필자의 교정을 받아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인인 필자의 경우 번역 비평자의 입장에서 중국인 교수의 초벌 번역본을 꼼꼼히 검토하고 난해한 문체 번역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등가적 대안을 선택해 주었다. 이렇게 수차례의 교정 작업을 거친 결과 이 번역본은 원문의 충실성과 번역본의 가독성에서 모두 성공적이라

사인 북경 작가출판사에서 10,000부 발행되었는데, 추가로 3,000부를 더 발행하였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소설은 보통 5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10만부가 넘어가면 전국적인 베스트셀러로 인정받는다고 한다.⁸⁾ 그러니 만치 순수문학작품으로 13,000부 발행부수는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11월14일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는 역시 한국 문학연구원의 출판지원으로 중국의 문학평론가 및 북경대학의 교수, 학생들과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제목도 『서울 형제들(漢城兄弟)』이라고 번역하였다. 원작 『마이너리그』의 상징적인 제목만 보고서는 작품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알기 쉬운 제목으로 의역을 한 것이다. 『마이너리그』의 중국 언론의 평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저자는 매우 새로운 시각을 사회의 폐단과 모순에 대하여 신랄한 풍자와 철저한 폭로를 하였다. 해학과 농담, 유머의 경쾌한 리듬 속에 독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생활을 그린 만화이다. 생활에는 웃음거리가 가득 차 있고, 웃음거리는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은회경의 현실비판은 공격적이지 않고, 풍자나 조소, 아이러니 같은 웃음을 통해 현실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들이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이루면서 이 작품 특유의 희극적 효과를 구성하는 것이다.⁹⁾

역자 진용함은 번역 후기에서 “『서울형제들(漢城兄弟)』(2004)는 한국의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사회소설인데, 이 작품은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70년대 초부터 지속 발전한 20세기 말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 사회 저변의 시민생활에 대하여 충분히 묘사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밝힌 사회소설이란 사회의 풍속과 습관 등을 소설에 담고 있다는 넓은 의미로서의 개념이다. 이어 작품에 대한 짚막한 소개를 한 후,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교와 군대 등에서 사람을 때리는 습관이 있으며,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가야하며, 한국

는 평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필자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목적은 번역 비평가의 입장에서 소설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전략을 학계에 소개하기 위함이다. 실제 번역과정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은 연구자와 번역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8) 신광웨이 저, 양원석 역, 『시장논리로 보는 중국 출판』 서울; 북스힐, 2006, 314쪽.
 9) 이성욱, 농담의 위장막 뒤에 숨은 것, 『마이너리그』 서울; 창비, 2001, 246쪽. “소설 작품의 표면에는 농담의 기운이 흔들거리고 웃음의 서사장치 또한 이곳저곳 돌아다닌다. 소설의 걸음은 경보에 가깝고 경쾌하기까지 하다.”

인들은 술을 좋아하고 정치를 중시한다는 등의 한국의 풍속이나 5.18 광주 항쟁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을 사항별로 열거하였다. 이는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 특히 한국의 풍속 등에 대한 설명은 아직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들이 하여금 작품에 대한 충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소설 문체의 등가적 번역 사례

(1) 등가 번역에 대하여

‘등가(Equivalence)’란 원작의 텍스트성이 훼손되지 않고 번역본 텍스트로 재현되었음을 의미한다.¹⁰⁾ 하지만 문체적 특징을 번역을 통해 완벽하게 재현하기란 쉽지 않다. 문체의 번역은 형태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등가성을 띠게 되므로 그러하다. 다시 말해, 문체가 작품의 의미 형성에 참여하는 몫, 그리고 그것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심미적 효과를 옮기는 것이다. 이는 번역자가 갖는 원작에 대한 이해의 각도와도 관련이 있다. 번역자 주관의 개입도 필요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등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의도적인 생략, 첨가, 변형(대체)과 설명식 번역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원작의 의미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면서 해당 텍스트가 자아내는 문체적 효과를 번역본에 그대로 살려내야 한다.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번역의 방식을 분류한 레이브(K.ReiB)는 문학을 ‘표현 중심의 텍스트’라고 하여 원작의 예술적 의도를 재구성하고, 미학적 감각을 가지고 저자의 표현 의지를 공감하면서 원작의 미학적 효과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했다.¹¹⁾ 이는 번역자가 원작의 의미 파악뿐만 아니라 이것의 예술성을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미학적 장치들까지 읽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벨록(Hilaire Belloc, 1931)은 다음과 같이 문학 번역의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¹²⁾ 첫째, 역자는 낱말을 낱말로, 문장을 문장으로 바꾸려 애쓸 것이 아

10) 이용혜, 앞의 논문, 387쪽.

11) 이석규 외,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 2002, 120쪽.

12) 이용혜, 「번역의 원칙과 등가성」 『한국(조선)언어문화연구 국제학술회의논문집』 북

나라 항상 자기 작품의 윤곽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번역할 작품을 하나의 총체적인 개체로 인식하여 각 부분 부분을 매번 번역하면서 전달할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 둘째, 원작의 관용구를 그에 알맞은 관용구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한 언어의 어느 구절이 갖는 작자의 의도가 다른 언어와 같은 뜻을 가진 구절로 번역될 때 그 강도가 원문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더 세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두고 원작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두 언어 체계에서 같은 뜻을 가지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어구들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원작의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대담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역자는 원작을 운색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요컨대, 번역은 원작의 내용이든 문체든 작가의 메시지와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겠지만, 한 언어가 온전히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다른 언어로 전이되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언어는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나라 민족이나 문화의 전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즈라 파운드스는 ‘말’이 ‘전기 같은 힘으로 충전된, 서로 다른 예리함과 무덤으로 이루어진 강철의 거대한 속빈 원추 같은 것’으로, 이 원추를 채우는 특정 에너지가 바로 ‘전통의 힘이며, 세기와 민족의식, 조화, 연상의 힘’으로 보고 있다.¹³⁾ 이러한 지적은 구체적으로 예증될 수 있다. 예로 중국어의 ‘홍색’은 우리나라 말로 ‘붉다’의 뜻을 갖지만 중국의 홍색과 한국의 붉다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중국에서 홍색은 좋은 색이고 행운을 뜻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전통적으로 붉은 색은 핏빛이어서 불길함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다른 나라의 상대적인 언어로 바꾼다고 해서 그 원의가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번역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의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등치의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행과 표현 사이에 잠복하고 있는 것에 투시력을 갖는 것이고, 원작의 배경에 친숙해지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습속과 전통, 그들의 생활양식, 그들의 희망과 역사를 아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특징적으로는 저자의 문제와

경; 민족출판사, 2008, 384쪽.

13) 이혜순, 「번역연구」 『비교문학』 1, 서울: 중앙출판, 1981, 160쪽.

의도를 더 깊게 아는 것이다.¹⁴⁾ 여기서 진정한 ‘등가’의 개념이 성립된다.

(2) 등가 번역의 사례

의인화한 수사적 표현, 의성의태어 표현, 언어유희 표현과 속담, 성어 등의 관용어, 설명적 번역이나 변형이 필요한 특수 어휘 등의 문체적 특징은 소설 『마이너리그』의 미적 가치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를 각각 【등가 표현】과 【등가 어휘】의 경우로 나누어 몇 가지 번역의 사례를 들어 본다.

【등가 표현의 경우】

<사례1> 의인화한 수사적 표현

①그제야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가로수 잎 속에 숨어 구경하던 바람이 이따금 자리를 옮기느라 나뭇가지를 발로 차곤 했다. 세상 전체가 슬렁였고 소리 높이 외치고 있었다.

(원작:156쪽)

天空變得昏暗起來，不知是示威人群的怒吼聲變成暴風了呢，還是人天感應，老天爺對這不公平的世道震怒了呢，突然間狂風大作，樹木嘩嘩作響。時局動蕩，人心浮動，整個世界似乎都陷入了不安和動蕩之中。

(번역본:156쪽)

②현주 누나가 내은 커피에 설탕을 넣는 물리선생의 손은 마치 영하 28도에 러닝셔츠만 입고 폭풍경보가 내린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렸다. 손가락은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는데 설탕은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그 설탕을 잡기 위해 손가락이 따라가면 설탕이 다시 왼쪽으로 몰려가는 식으로 허공에서 따로 놀았다. 그런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사코 그 일

14) Anaclata M. Encarnacion, "Problems in Translation", *Tamkang Review*, vol. II, No.2 & vol.III, No.4(Taiwan, 1971~1972), 443쪽.

만 꾸역꾸역 되풀이하며 앉아있다 보니 물리선생의 잔 받침 위에는 흰 설탕 가루가 수북했다.

(원작:74쪽)

當他往咖啡里放糖的時候，拿勺子的手就像零下28度穿着个背心在冰天雪地裏站着的人一樣，抖个不停，還沒等他放到杯子里，那些糖就抖撒到桌子上去了。物理老師好几次想使自己鎮定下來，都因為手不從心而沒有達到目的。最后，他不得不用另一只手扶着勺子往里邊放，結果咖啡杯子旁邊還是撒了不少白糖。

(번역본:70쪽)

①예문에서는 ‘바람’을 의인화한 문체적 특징이 드러난다. 필자는 밑줄 친 부분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했다. ‘바람은 군중(사람)의 오자(誤字)로, 수많은 인파가 나무 숲 사이로 얼굴을 숨기고 시위대를 지켜보는 광경’이라고 보았다. 이 문장을 접한 필자는 1989년의 중국 천안문 사태 당시의 시위대를 떠올렸다. 이는 역시 원작 97쪽에 실린 다음 문장과 연계 선에서 해석한 것이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시국 선언문을 뿌린 뒤 기관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학생을 본적이 없는가. 승주는 부끄러워하면서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따돌리느라고 남자 친구를 사귄 시간도, 나무 위를 살필 틈도 없었다며 교제의 폭이 좁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결국 지나친 사고의 비약이었고, 후에 원작자 은희경의 지적으로 ‘갑자기 광풍이 불자 나무가 썩어~ 하며 소리를 낸 것(突然間狂風大作，樹木嘩嘩作響)’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원문과 번역문이 형태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문체 번역의 중점인 기능적 등가성을 이룸으로써 원작의 의미적 심미적 전달 효과를 잘 전달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체적인 특징을 이루는 미학적 요소들은 번역자의 이해와 해석을 전제로 하여 번역자 고유의 ‘다시 쓰기’를 통해 재창출 될 수밖에 없다.

②예문은 현주 누나가 내은 커피에 설탕을 넣는 물리선생의 당황스런 행동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묘사하고 있다. 손이 떨어진 탓에 떨어진 이 광경을 ‘설탕’과 ‘손가락’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인데, 앞뒤 문맥과 연결 지어 절제된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기능적 등가를 이룸으로써 전체 단락의 의미가 한결 분명하게 전달된다. 의인화한 문장(밑줄) 만을 따로 떼어 직역했을 경우,

상당히 어색한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역시 기능적 등가성을 이룸으로써 원작의 의미적 심미적 전달 효과를 잘 전달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의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등가의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행과 표현 사이에 잠복하고 있는 것에 투시력을 갖는 것이고, 가장 특징적으로는 저자의 문체와 의도를 더 깊게 아는 것이다.

<사례2> 의성, 의태어 표현

①선생이 교단을 내려서자마자 교실 안은 순식간에 전혀 다른 장소로 바뀌어버린다. 한 트럭분의 돼지새끼들을 풀어놓은 축사가 되는 것이다. 모두들 선채로 앉은 채로 돌아다니는 채로 왁자지껄하다. 주변은 백목을 뚝뚝 부러뜨려가면서 칠판 한 가득 힘차게 판서를 해놓곤 하는 한문 선생을 욕하며 칠판을 지운다. 분필가루가 꼭꼭 묻혀진 칠판지우개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조심조심 복도로 나가다가 담배를 피우러 급히 화장실로 가는 애들과 부딪치기도 한다.

(원작:9쪽)

老師剛一走下講台，學生們就像炸了窩的馬蜂，一下子亂了起來。教室里，有人在座位上歪歪扭扭地坐着，有人在過道上擠來擠去，有人在原地站着嚷嚷着什麼，熙熙攘攘，亂成了一團。 值日生一邊擦着寫滿了一黑板的粉筆字，一邊嘟囔着：“這古代漢語老師可真是的，上課老愛寫這麼多，又愛這麼使勁寫，弄斷了不少粉筆不說，叫人擦起來都費勁。” 值日生嘴里不停地嘟囔着，一只手拿着一个沾滿了粉筆末的黑板擦小心翼翼地向樓道走去，但不小心又和急着要到廁所抽煙的學生撞了个满怀。

(번역본:1쪽)

한국어의 특성 중 하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 의성의태어 표현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적 형상화의 유효한 수단임에도, 중국어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의성의태어를 등가 역으로 옮긴다면 독자들에게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역이 될 수 있

다. ‘악자지껄’은 몹시 소란스럽게 지껄이고 떠드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중국어로 대역한다면, ‘여럿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哄鬧)’ 정도가 될 것이다. ‘꼭꼭’은 단단히 힘을 주어 자꾸 아주 세게 누르거나 죄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중국어로 대역한다면, ‘힘주어(使勁)’ 정도가 어울릴 것이다. ①예문은 의성의태어의 대역어가 없는 중국어의 현실을 감안하여 ‘악자지껄’의 경우, ‘홍성 홍성하게 왕래가 빈번하여 어지럽게 얽힌 모습으로’, ‘똑똑’은 ‘글씨를 힘주어 쓰느라 적지 않은 분필을 부러뜨리는 행위’로, ‘꼭꼭’은 ‘가득 묻은’ 의미로 각각 등가 번역을 했다. 언어 표현의 현장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원작의 의도가 충실하게 전달된 사례이다.

그리고 주변이 칠판을 지우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한문 선생님을 두고 중얼대는 말투로 욕하는 모습을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직접화법으로 변형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주변의 ‘(선생님을) 욕하며 (칠판을) 지우는’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중국어의 특징이나 독자들을 배려한 보다 확실한 의미전달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사례3> 언어유희(pun) 표현

①두환과 펜팔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았다. 칼이라면 모르되 펜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었고, 그가 아는 팔이라는 것은 주먹을 매달고 있는 신체기관일 뿐이었다.

(원작:19쪽)

讓斗煥加入筆會那簡直是趕着鴨子上架，首先對動筆他就不靈，要說動刀子，也許還有兩下子。至于說那个筆會的“會”嘛，他可是什麼也不會。

(번역본:14쪽)

②‘유고’가 무슨 뜻이나? 눈 뜨자마자 정신없이 버너와 코펠을 챙기고 겨우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르고 나온 데다 버스 안에서 줄곧 졸았던 나로서는 조국의 질문이 갑작스럽기만 했다. 글쎄, 유고슬라비아 말이야? 아니면 이광수의 미발표 원고라고 발표되었나?

(원작:92쪽)

“‘變故’是指什么玩意儿?”這一問把我也弄蒙。我一大早起來，就往背包里裝煤氣爐和簡易飯鍋，三把兩把塞好，就急急忙忙出來了。坐上公共汽車還一直在打瞌睡，到現在還沒有緩過勁來呢，所以也就糊里糊塗地應了一句：“邊鼓就是中國戲劇里邊敲的那個小鼓唄。”

(번역본:88쪽)

③성은 조이고 이름은 국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조국! 이렇게 불린다. ㉠ 국아! 하기엔 어딘지 배고프고 처량하게 들리고, ㉡ 조국아! 하려다 보면 조국이여!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원작:14쪽)

姓祖名鞠，但是偏巧韓國語中“鞠”与“湯”同音，如果單呼名字不称姓，叫他“湯”就顯得非常不雅，而且也容易喚起人的飢餓感。再加上，韓國人在打招呼的時候往往愛在姓名后邊加一个“啊”字，如此一來，誰喊他的名字也都會感到很抒情。

(번역본:8쪽)

①예문은 오직 힘만 쓸 줄 알지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는 두환이를 ‘펜팔’이라는 단어를 통해 희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펜팔’이라는 단어를 통해 두환이의 인물 유형이 그지없이 뚜렷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영어 ‘pal’과 우리말 ‘팔’의 발음상 유사성을 활용한 이 구문을 중국어로 옮겨서 동일한 효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번역과정에서 이를 ‘펜클럽(筆會)’를 활용한 중국어의 언어유희(pun)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筆會’이 ‘펜팔’과 의미상 다르다고 하여 이를 오역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깡패형인 두환이의 인물 유형 및 이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미적 효과도 함께 구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¹⁵⁾

②예문은 ‘유고’를 활용한 우리말 언어유희 ‘고(故)’를 중국어의 언어유희

15) 소설 문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언어유희 표현'에 대한 본고의 내용은 최은정 교수의 논문을 재인용했음을 밝혀둔다. 번역본의 다양한 오역 사례를 제기해 준 최은정 교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최은정, 「미학적 측면에서 본 우리말 소설의 중국어 번역고찰」(『중국어문학』 54집, 한국중국어문화회, 2009), 384쪽 재인용.

‘고(鼓)’로 옮겼다. 원문을 보면 ‘유고’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국의 무지함과 잠이 덜 깬 ‘나’의 무성의함이 겹쳐지면서 국상이라는 심각한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번역문에 그대로 재현시켰다. 즉, 원문과 번역문의 밑줄 친 부분은 형태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문체 번역의 중점인 기능적 등가성을 이룸으로써 원문의 의미적 심미적 효과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¹⁶⁾ 언어유희는 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의미에 동시에 작용한다. 때문에 언어유희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읽어내야 한다. 제시된 위의 두 예문은 도착어의 언어유희로 번역하여 의미적 심미적 등가성을 이룬 경우이다.

③예문은 4인방 중 한 명인 ‘조국’에 관한 설명이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언어유희의 이중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번역에서는 조국 = 국가의 의미를 그의 성 ‘조(祖)’에 담았다. ㉠을 옮기면서 ‘국’이라는 발음과 ‘탕(湯)’의 관계에 대한 설명식 번역을 부가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반면, ㉡의 경우, 한국인은 인사할 때 이름 뒤에 ‘아’자를 붙인다는 식으로 설명식 번역을 해 주고, ‘아’와 ‘이여’에 대한 비교는 생략을 하였다. 중국어권에서 어미 ‘~아’와 ‘~이여’의 어감상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¹⁷⁾ 위 예문은 언어유희가 포함된 원문의 일정 부분이 ‘생략’되거나 또는 원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명식으로 첨가’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등가 어휘의 경우】

<사례4> 속담, 성어 등의 관용어

①개발에 편자라고 못난둥이 주인에게 과분하게 충직한 그 개는 자기가 개밥에 도토리 신세인 것을 모르고 주인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원작:126쪽)

16) 최은정, 앞의 논문, 385쪽 재인용.

17) 최은정, 앞의 논문, 386쪽 재인용.

這還不是“狗爪子上釘馬掌，不相稱”嘛，這條狗對他那沒出息的主人太過忠誠，並不知道自己已經被拋棄，還一聲不吭地跟着他。

(번역본:125쪽)

②예쁜 여자의 경우는 전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예쁜 여자들도 잘 생긴 남자 아닌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다. 열 번 짝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 결코 아니다. 예쁜 여자들도 여느 여자들처럼 현실적이므로 잘 생긴 남자와 달리 승배의 미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

(원작:122쪽)

漂亮女孩子的情况又和男孩子不盡相同。一般來說，漂亮女孩子不是和長得好看的男孩子結婚，恰恰相反，却是和長相平平的男孩子結婚。如果一个長相一般的男孩子死乞白賴地纏住一个如花似玉的女孩子不放，他咬緊牙關，橫下一條心纏磨上十次沒有弄不到手的。長得漂亮的女孩和一般女子一樣都是很現實的，她和帥哥不一樣，並不會醉倒在男孩子崇拜的甜言蜜語之中而不瞻前顧后地去愛一个男子。

(번역본:121쪽)

③시장기를 느낀 조국이 냉장고에서 동태찌개를 꺼내 데워왔다. 생선 대가리를 향해 전진하던 승주의 젓가락이 조국의 젓가락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그들이 생선 대가리를 두고 다투는 것은 자주 보는 풍경이었다. 그 장면을 두고 조국이 쓰는 사자성어는 ‘어두육미’가 아니었다. ‘머리싸움’이었다. 조국은 옛날 중국에서 생선 대가리를 서로 먹으려던 친구들의 싸움이 전쟁으로 변진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리싸움이란 말이 유래했다고 알고 있었다. 우기는 일해야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원작:228쪽)

祖鞠覺得肚子有点餓了，他從冰箱里拿出了煎明太魚干去熱了一下，升洲正要拿筷子去夾魚頭，結果叫祖鞠用筷子給擋住了。其實，在餐桌上爲爭着吃魚頭展開唇槍舌戰，那是常有的事。在這種情況下，祖鞠最愛用一個四字成語，那就是“魚頭畜尾”。這句話的意思是說，魚的頭和牛豬等家畜的尾巴最好吃。但爭來爭去各不相讓，其結果就變成“魚頭大戰”了。祖鞠

還對人說，在中國古代，几个朋友爲了爭吃魚頭最后還演變成了一場戰爭，“魚頭大戰”這句話就是從這儿來的。這種二杆子話听着都讓人覺得十分可笑，可這位老先生說得還那么認真，眞像有那么回事似的。

(번역본: 228쪽)

①예문에는 두 개의 속담이 인용되어 있다. 원작에 나오는 속담은 이 두 개 뿐이다. 전체 의미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밑줄 친 속담 부분에 대한 번역은 생략을 했다. ‘개발에 편자(狗爪子上釘馬掌)’는 가진 물건이나 입은 옷 등이 제격에 어울리지 않아 우스꽝스러울 때 쓰는 속담인데, 여기서는 못난등이 주인에게 과분하게 충직한 개를 비유하고 있어 직역이 가능하다. ‘개밥에 도토리(狗食裏的橡子)’는 버려져서 고립되는 것을 비유하는데, 중국어에 상응할만한 대역어는 없다. 만약 이를 ‘개밥 속의 도토리와 같은 신세(狗食裏橡子般的處境)’라고 직역을 한다면 속담이 나타내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번역본에는 모두 생략 처리하였지만, 본 논문에는 등가 번역을 시도한 권금숙의 번역을 여기에 인용하였다.¹⁸⁾

②예문에서의 ‘열 번 찍다’는 말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樹不經百斧，人不經百語)’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속담을 활용한 문체이다. 이 번역에서는 ‘열 번 찍다’라는 의미에 대해, 상대적으로 길게 설명식으로 풀어서 번역했지만, 원작의 의도는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물의 행동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맥락에 맞게 묘사형 표현을 사용하였다. 중국 어권에는 똑 같은 표현이 없지만, 그 뜻을 가장 잘 표현한 번역이다.

③예문은 한자 성어의 번역 사례이다. 4자 성어인 한자어는 비록 그 표면은 짧고 간결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들 사이에 공감을 불러일으킨 삶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다. ‘어두육미(魚頭肉尾)’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모두 관용적으로 쓰이는 성어인데, 중국 문화 습관에 맞게 ‘어두축미(魚頭畜尾)’라고 번역했다. 이어서 조국이 잘 쓰는 사자성어가 ‘어두육미’가 아닌 ‘머리싸움’이 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식으로 번역했다.

18) 권금숙, 『韓國諺語中譯方法論研究』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8쪽.

<사례5> 설명적 번역이나 변형이 필요한 특수 어휘

① 승주와 조국은 출정 전의 관우와 장비, 혹은 저팔계와 사오정처럼 친하를 들었다 놓았다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원작: 170쪽)

升洲和祖鞠就像竝肩作戰的關羽和張飛，或者說就像一起除妖的斬豬魔的豬八戒和孫悟空，兩個人推杯換盞，喝了個天昏地暗，倒海翻江。

(번역본: 172쪽)

②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교과서에 실린 글은 모조건 깔보는 지성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늘 옹고도 뻥한 소리만 읊어대는 시조를 특히 고리타분하게 여겼다. 그나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 하리라’라고 읊는 시조 정도면 내 인생에 비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했다.

(원작: 16쪽)

我這個人就是有點怪，欣賞品味很高，對收進教材的文章我都看不上眼，尤其對人們所推崇的只知空發感嘆的時調很反感，但例外的是，像成三問的時調¹⁹⁾，我感到，倒也可以讀一讀，因為里邊所寫的“擎天長松，銀雪世界唯我獨青”的詩句還是比較適合我的口味的。

(번역본: 10쪽)

③ 우리는 네 개의 팔을 엇갈려 엮은 다음 그 위에 배갈병을 올려놓고 돌아가며 나발을 부는 의식을 경건하게 치른다.

(원작: 15쪽)

我們四個人就學着“編籃子”時挽胳膊的動作，各自伸出了一條臂膀，互相交叉着“編”起來，把老白干瓶子放在“編”好的胳膊上邊，大家輪流往嘴里灌。

19) 이 부분의 번역문에는 『단심가(丹心歌)』(정몽주(鄭夢周) 시조(時調))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번역본:9쪽)

④논리학에서 말하는 ‘우물에 독 뿌리기’ 작전은 몰랐지만 붕어빵을 땅에 떨어뜨린 뒤 싸게 사는 방법은 알았다.

(원작:35쪽)

雖然，祖鞠對邏輯學上所說的先下手為強并不明白，但他深知，即是一個鯽魚模樣的餅掉在地上它也就失了身份，賣不上原價了。

(번역본:31쪽)

⑤그것은 끼니마다 콩밭을 먹지 못하고 사식도 들여올 수 없을 뿐이지 수형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다.

(원작:64쪽)

這種“停學”和坐監獄的區別僅僅是不用吃發了霉的豆兒飯，可以自己買飯吃，除此之外，這種生活和被關進鐵窗是沒有多大區別的。

(번역본:61쪽)

⑥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결국 돈은 끊겼다. 시간의 뒤안길에 남은 것은 무력해진 한 인간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윤충은 의분이 끓어올라 거리에서 돌을 몇 번 던졌고 한번인가는 닭장차에 실렸지만 금방 풀려났다.

(원작:103쪽)

這位大哥也只是一个在這種獨裁社會面前顯得十分軟弱的小小老百姓而已，但這個故事對云聰思想的沖擊却是巨大的，她曾經為那位大哥的結局抱不平，好几次義憤填膺地對着警車扔石頭，后來她被警抓進了悶罐車，不几天又被放了出來。

(번역본:100쪽)

⑦조국과 승주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각기 ‘정릉!’과 ‘신촌!’을 외쳤지만, 이상하게 차가 서지 않았다. 차도로 뛰어나가 택시 한 대를 포위하다시피 해서 세우고 물어보니 한강 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무슨 육이오 적 얘기예요? 조국이 시비조로 물었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원작:104쪽)

祖鞠和升洲對着開過去的出租車，喊：“停車，我到貞陵！”“停車，我到新村！”可奇怪的是，沒有一輛出租車在我們面前停車。后來我們几个人干脆跑到馬路中間去截車，一輛出租車才不得不嘎吱一聲刹住了車。一打聽，才知道漢江大橋塌了。祖鞠用嘲弄的語調問司機：“怎么弄得像‘6·25韓戰’一樣緊張？”這時，汽車已經開走了。

(번역본:102쪽)

①예문에서 원작자는 『삼국연의』와 『서유기』라는 중국 명대 『사대기서』에 담긴 주인공들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중 원작에는 ‘사오정’이라고 되어있으나, 번역 과정에서 이를 ‘손오공’으로 바꾸었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번역자의 의지가 개입된 오역이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원작자 은희경은 이에 대해 『서유기』 중의 두 인물을 임의로 골라 서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인 필자와 공역을 했던 중국인 번역자 진용함의 입장은 일관적이었다. 사오정은 스님의 신분으로서 술을 마실 수 없고, 이것이 『서유기』의 원작국인 중국 독자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원작의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중국어권 독자들에게 익숙한 인물인 만큼 그들의 문학적, 문화적 정서에 위배되는 내용은 번역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²⁰⁾ 번역자의 변형은 원작 중 전통 사상이나 문학관과 지나치게 이질적인 내용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등장인물(손오공, 사오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에 내재된 가치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②예문에서는 조선 세종대의 문신 성삼문(成三問;1418~1456)이 계유정란(癸酉靖亂)때 지은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의 중장, 종장을 드러낸 내용이다. 번역에서는 작자 성삼문 작품임을 설명식으로 보충하여 넣었고, 시조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견 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 중에 중장, 종장만을 들어 자신의 인생과 비유하고 있다. 간단한 첨가지만, 중국의 독자들에게는 한층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③예문을 접한 독자들은 ‘네 개의 팔을 엇갈려 엮는(원작 15쪽)’ 행위가 무

20) 이혜순, 「번역작품 연구의 방향과 의의」 『어문연구』105호, 2000, 136-139쪽.

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원작 13쪽에 이런 말이 있다. “바구니를 짜는 방식으로 서로의 몸을 네모나게 엮은 다음 밧길질을 받는다. 이러한 행동을 학생들은 ‘바구니 짜기(編籃子)’라고 했다.” 원작 15쪽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기에, 13쪽의 번역 내용²¹⁾을 이 부분 번역에 설명식으로 보태주었다. 또 ‘(병) 나팔을 불다’는 의미도 ‘(여럿이) 병을 거꾸로 입에 대고 속에 든 액체를 들이키는 행위’와 대응하는 ‘여럿이 돌아가며 입에 부어 넣는(大家輪流往嘴里灌)’식의 등가 번역을 했다.

예문④~⑦은 각각 생소한 어휘에 대한 설명식 방법을 채용한 번역이다. 중국어로 대응할 수 없는 어휘들의 경우, 예컨대 ‘붕어빵(붕어 모양의 빵)²²⁾’, ‘콩밥(교도소 밥, 곰팡이가 낀 콩밥, 상한 밥)’, ‘닭장차²³⁾(전경 버스, 죄수 등을 태우기 위하여 쇠 그물을 둘러친 차를 속되게 이르는 말)’, ‘육이오 적(6.25 한국전쟁)’ 등에 대해서는 각각 중국의 독자들을 의식해 각각 대체식, 첨가, 설명식으로 번역을 한 경우이다.

(3) 등가 번역 예외의 사례

<사례6> 반어투를 사용한 대화체 문체 번역의 한계

① 우리 넷이 두름에 꿰인 굴비처럼 쪼르르 엮어서 불러오자 교무실의 분위기는 시종 훈훈했다. 또 저놈들이야? 이번엔 그냥 두면 직무유기겠지? 그러엄, 풍기문란 죄를 범하셨다는데 그거 덮어주려다 긴급조치 위반하게?
(원작:63쪽)

21) 『漢城兄弟』, 6쪽. “四个人習慣地伏下身子, 頭對頭地挽起對方的胳膊, 正好搭起了个四方体。這樣, 老師踢起來就會更得勁。這種舉動, 通常學生們把它叫“編籃子”。

22) 실제 중국어에는 붕어빵에 대응할 만한 단어가 없다. 번역본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금붕어 브랜드 빵(大家都喜歡的金魚牌面包)”이라고 오역을 했으나, 이 경우에는 “붕어 모양의 빵(鯽魚模樣的餅)”이라고 설명식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23) 닭장차는 중국어로 대응할만한 단어가 없다. 그래서 번역본에는 “밀폐된 기차의 화물차(悶罐車)”라는 용어로 대체 번역을 했다.

我們四个又被叫到了教導處。一進門，我們就覺得气氛很不對頭。“又是你們几个坏小子！”“這一次要放過他們，那我們得犯瀆職罪。”“沒錯！”“你們几个上次犯了擾亂學校秩序罪，我們好不容易給你們掩盖過去了，這次你們又違反了政府頒布的緊急處置條例，拐騙女生外出。你們自己說，該當何罪？”

(번역본:59쪽)

①예문은 여학생들과 놀러갔다가 걸린 4인방에 대해 선생님들의 반응을 묘사한 것이다. 원작자 은희경은 인용 부호 없이, 반어투를 사용하여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교 교사들의 대화로 보기에 다소 가벼워 보이는 말투에서 선생님이 대표되는 70년대 지식인의 일면에 대한 화자의 시선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화체의 경우 인물의 성격과 환경 등에 의해 말투가 결정된다. 그리고 시대적인 특수성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부분 외에도 화자가 고교 시절을 묘사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물리, 교련, 국어, 지리,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회화화되어 있다.

이 부분을 번역본에서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였고,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추가 설명을 첨가함으로써 다소 진지한 교무실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원작자 은희경이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상황- 4인방의 입장에서 결코 훈훈하지 않았을 교무실 분위기, 존대어를 쓰는 선생님들이 주는 심미적인 효과는 전달할 수가 없었다. 가벼운 말투에 내포된 의미를 읽어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24) 문체 번역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미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질 경우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또 다른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번역을 원작의 ‘다시 쓰기’ 과정으로 보고, 은희경의 장편 소설 『마이너리그(漢城兄弟)』를 분석 텍스트로 삼아 원작 속 문체의 다양성을

24) 최은정, 앞의 논문, 388쪽 재인용.

중국어로 번역함에 있어 등가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사례를 들어 원작 속 미학적 장치의 번역본에서의 등가적 구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가(Equivalence)’란 원작의 텍스트성이 훼손되지 않고 번역본 텍스트로 재현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번역자는 작품의 등가성을 이루기 위해 언어학적인 요소 외에도 언어외적인 요소인 생활습관, 가치관, 문화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 인용된 번역의 사례들은 이러한 소설 문체의 다양한 기법을 등가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의 어휘와 1:1로 대응하는 중국어를 찾기 보다는 장면에 맞는 중국어 표현법을 찾아 의미적 심미적 등가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문체의 번역은 표현, 어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등가 표현과 등가 어휘로 나누어 각각 분석했는데, 등가 표현의 예로는 의인화한 수사적 표현, 의성태어 표현, 언어유희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등가 어휘의 예로는 속담, 성어 등의 관용어, 설명적 번역이나 변형이 필요한 특수 어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등가 번역으로도 문체 표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반어투를 사용한 대화 문체 번역의 한계가 그것이다.

소설 번역의 경우, 언어의 상이성이나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번역자가 문체적 특징을 원작과 동일하게 재현하거나 또는 원작에 상응하는 미학적 효과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문체의 번역은 형태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등가성을 띠게 되므로 등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의도적인 생략, 첨가, 변형(대체)과 설명식 번역이 불가피하다. 원작의 의미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면서 해당 텍스트가 자아내는 문체적 효과를 번역본에 그대로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공간에 바람직하게 편입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을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이러한 번역자의 안목일 것이다.

참고문헌

- 은희경 (2001) 『마이너리그』, 서울: 창비. (원작)
 殷熙耕 著, 秦雍哈 · 琴知雅 共譯 (2004) 『서울형제들(漢城兄弟)』 北京, 作

家出版社. (번역본)

- 김효중 (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 박갑수 (1998) 『현대 문학의 문체와 표현』, 서울: 집문당.
- 박성창 (2009) 『글로벌시대의 한국문학』, 서울: 민음사.
- 신광웨이(著), 양원석(譯) (2006) 『시장논리로 보는 중국 출판』, 서울: 북스힐.
- 이석규 외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
- 이은숙 (2009) 『번역의 이해』, 서울: 동인.
- 이혜순 외(2002)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서울: 태학사.
- 선영아 (2008) 『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연구』 9(4).
- 도희진 (2008) 『중한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9(3).
-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 고인덕 (2005) 「한국문학의 중국어권 진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25.
- 周玉波 (2007) 『텍스트 유형 중심의 중한 번역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최은정(2009), 「미학적 측면에서 본 우리말 소설의 중국어 번역고찰」, 『중국어 문학』 54집.
- 謝天振 (2007) 『譯介學導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姜秋霞 (2009) 『文學翻譯與社會文化的相互作用關係研究』,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沈儀琳 (2005) 『韓文漢譯實用技巧』,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權今淑 (2012) 『韓國諺語中譯方法論研究』,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 중앙민족대학 조선어문화학부 (2008) 『한국(조선)언어문화연구 국제학술회의논문집』, 북경: 민족출판사.

[Abstract]

Stylistic Analysis of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Novels
— Case study of Heekyung Eun's *Minor League*

Keum, Jia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Peking)

A translated work can never be the same to the original work. Operational definition of translation therefore precede the discussion of the translated work. Incorporating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analysis of a translated work would clear the problem. In this point of view, a comparative study of a translated work should focus on the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work and how it translated the original meaning. In this paper, translation is operationally defined as a process of rewriting the original work. The process of rewriting involves creative recreation of the original work preserving its original meaning.

Heekyung Eun's novel <Minor League(漢城兄弟)>, which the author of this paper participated in the translation, highlights the challenges in translating diverse literary features of the original work. In case of novel translation, the translator typically focuses on the original author's writing style which include a figure of speech, rhetoric expressions, idiomatic expressens, onomatopoeia, mimesis and puns. The translator would have to make multiple decisions on how to translate the original work preserving its intention and figurative features. In this paper,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work are discussed, and various translation methods are analysed with examples. The methods include omission, addition, creative adoption, rhyme, and explanation.

▶ Key Words: Heekyun Eun's *Minor League*, Chinese translation, Literary style, Rewriting the original work, Case analysis of translated literature

금지아

북경대학 한국어학부 부교수

kja2451@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번역사회학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